

[고전수필강독]

동유기·동행기

- 목 차 -

I. 임춘 - 『동행기』

1. 작가- 임춘
2. 동행기 원문해석
3. 동행기 작품 분석
4. '동행기'와 시대상, 의의

II. 이곡 - 『동유기』

1. 작가-이곡(李穀)
2. 동유기 원문 해석
3. 동유기 내용 분석
4. 동유기의 특징·의의
5. <금강산> 관련 자료
6. 『산정무한』 과 『동유기』 에 대하여

임춘 동행기

1.작가- 임춘

1. 임춘

생몰년 미상. 고려 의종~명종 때의 문인. 자는 기지(耆之), 호는 서하(西河). 문헌을 상고하여보면 대략 의종경에 태어나 30대 후반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건국공신의 후예로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할아버지 중간(仲幹)과 상서(尙書)를 지낸 아버지 광비(光庇) 및 한림원학사를 지낸 큰아버지 종비(宗庇)에 이르러 구 귀족사회에 문학적 명성으로 기반이 닦여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유교적 교양과 문학으로 입신할 것을 표방, 무신란 이전에 이미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그러다가 20세 전후에 무신란을 만나 가문 전체가 화를 입은 가운데 그는 겨우 피신하여 목숨은 부지하였으나 조상 대대의 공음전(功蔭田)조차 탈취당한 채 개경에서 5년간 은신하다가 가족을 이끌고 영남지방으로 피신, 약 7년여의 유락(流落)을 겪었다.

그런 생활 중에서도 당시 정권에 참여한 인사들에게 벼슬을 구하는 편지를 쓰는 등 자천(自薦)을 시도하였다. 다시 개경으로 올라와 과거준비까지 한 적이 있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의와 빈곤 속에 방황하다가 일찍 죽고 말았다. 끝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현실인식의 태도에 있어 유자(儒者)로서의 입신행도의 현실관을 견지하였으며, 남달리 불우하였던 생애를 군자의 도로 지켜가고자 하였다. 이인로(李仁老)를 비롯한 죽림고회(竹林高會)벗들과는 시와 술로 서로 즐기며 현실에 대한 불만과 탄식, 큰 포부를 문학을 통하여 피력하였다.

2. 임춘과 죽림고회

고려 중기 무신집권기의 문학 모임으로 오세재·임춘·이담지·조통·황보항·함순 등 7현(七賢)으로 구성되었다. 중국 진(晉)나라 때 자유방임적인 노장사상(老莊思想)에 심취하여 시주(詩酒)를 벗삼던 죽림칠현을 본떠 모임을 가짐으로써 죽림고회라 불렀다. 무신집권기에 문인들이 정계에서 소외되자 산야(山野)로 들어가 시와 술으로써 불우한 자신들의 처지를 위로했다. 이들이 노장사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청담적(淸談的)·출세간적(出世間的)·방종적(放從的)인 풍모를 흠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춘은 이 모임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이 모임은 당시 문단을 대표했고 그 영향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를 쓰는 것 외에도 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들이 매일 모여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거리낌없이 함부로 행동하자 이러한 태도를 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3. 임춘의 문학

그의 시는 강한 산문성을 띠고 있는데 거의 그의 생애의 즉물적 기술이라 할 만큼 자신의 현실적 관심을 짙게 드러내고 있다. 가전체소설인 <국순전 麴醇傳>·<공방전 孔方傳>은 신하가 취하여야 할 도리에 대한 입언(立言)이면서 당세의 비리를 비유적으로 비판한 의인체 작품이고, 서(書)·계(啓)·서(序)·기 등은 안분지기(安分知機)·가일(可逸)의 경지를 그려내고 있다. <장검행 杖劍行>을 비롯한 장편 시들은 불우한 그의 인생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와 비분의 토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강렬한 현실지향성이 그의 문학의 특징이며, 투철한 자아인식의 산물이라는 점에

서 문학사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천의 옥천정사(玉川精舍)에 제향되었다. 문집인 《서하선생집》은 그가 죽은 뒤 지우(知友) 이인로에 의하여 엮어진 유고집으로 6권으로 편찬되었으며, 《동문선》·《삼한시귀감 三韓詩龜鑑》에 여러 편의 시문이 실려 있다.¹⁾

2. 동행기 원문해석

세상에서 산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동(江東) 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하늘이 물(物)을 창조할 때에 어디는 좋게 어디는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본시부터 없었을 터이니, 어찌하여 한 쪽 지역에만 후하게 했는가," 하였었다. 그러다가,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치가 기절할 곳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실컷 보았다. 그리고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또 그 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는데 명주, 원주의 경계부터는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은 더욱 높고 물은 더욱 맑았다. 일천 봉우리와 일만 골짜기는 기절과 수려함을 <서로> 경쟁하는 듯하였다. 백성들이 그 사이에 거주하는데 비탈에서 밭을 갈고 위채롭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니, 완전히 특별한 세계가 따로 이루어진 듯하여,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여 모두 양보하고 굴복하여 감히 겨룰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리어서 이 곳이 된 줄을 알게 되었다. ->서론

죽령에서 서쪽으로 20여리를 가면 당진이라는 물이 있다. 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둥글고 반질반질하며 푸른 빛이 난다. 빛은 투명하여 물이 푸르게 보이며 잔잔하여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물고기 수 백 마리가 돌 사이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 좌우편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 세운 듯 산이 솟아서 만 길이나 될듯한데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린 것처럼 보인다.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은 요철 같아 움푹하기도 하고 볼록하기도 하며 굴 같기도 하다. 기이한 화초, 아름다운 대나무가 엇갈리게 자라서 그림자가 물 밑에 거꾸로 비친다. 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을 적었을 뿐이요,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어라 형언할 수가 없다. 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말에서 내려 석벽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다. 배 안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산골짜기는 모두 메아리를 친다. 곧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놀면서 하루 종일 돌아설 줄을 모르고 있었다. 어두운 저녁빛이 먼데서 부터 스며들었다. 그 경치가 너무 싸늘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기에 시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놓고 그 곳을 떠났다.

푸른 물 출렁출렁 빛깔은 쪽빛과 같은데,
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서 있는 듯하다.
표연한 만릿 길에 동으로 가는 나그네는,
홀로 돛대 한 폭을 가을 바람에 달고 가네

1) 재미있게 간추린 한국인물탐사기 2 (고려의 인물)

내가 동쪽 지방으로 수레바퀴와 말발굽을 끌고 다닌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저 좋은 곳은 없었다. 만일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천냥씩이라도 값을 올려 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 다만 먼 지역에 외따로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고 간혹 사냥꾼이나 어부가 여기를 지나지만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 두었다가 우리같이 궁하고 근심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일 듯하다.

명주의 남쪽 재를 넘어서 북으로 해변에 이르니,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동산이라 한다. 민가가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 그 성에 오라서 바라보니 어스름 저녁빛이 어둑어둑하여지는데, 길 옆에 고기잡이하는 집에는 등불이 깜박였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며 고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내게 하였다. 밤에 객주집에서 잤다. 석벽을 기대고 불안한 자세로 앉으니 강물 소리 출렁거리며 그 철 줄을 모른다. 우레가 터지는 듯, 번개가 치는 듯, 사람의 머리끝은 쭈뼛하게 하였다. 부견이 군사 백만을 거느리고 와서 강남을 공격할 때에 군사를 지휘하여 퇴각시키다가 겁결에 대오가 무너져 걷잡을 수 없이 장비와 물자를 다 내버리고 빨리 달아나던 모양과 같았다. 어쩌면 그렇게 웅장한 것인가. 마침내 시를 썼다. 이르기를,

주민들은 서글퍼, 바다에 나간 사람 반이나 된다.
백 길이나 되는 산마루에 높은 건물이 솟아 있구나.
돛대 그림자 가볍게 날아오니 생선 파는 시장은 넓어만 가고,
물결이 다투어 주름 지니 바다의 어귀는 아득하여라.
싸늘한 황혼이 달빛을 띠고 말안장에 실려 왔는데,
밤중 밀물 소리에 나그네의 베게머리는 시끄럽구나.
오강정 위에서 바라보는 운치만 못하지 않아,
붉은 단풍 푸른 굴이 긴 다리에 비쳤어라.

새벽에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를 듣고 떠나서 낙산 서쪽을 지나는데, 길 옆에 외따로 서 있는 소나무가 있었다. 마디와 눈이 또렷하고 가지와 줄기가 구불구불하여 땅을 덮고 있는데, 그 그늘이 미친 곳이 몇 십보나 되었다. 이상하다. 소나무로서 이렇게 기괴하게 생긴 것이 세상에 또다시 있을까. 골 안은 깊숙하고 고요하며 구름 어린 물은 흐릿하며 아마도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요. 신선이 거주하는 곳인 듯, 높은 선비의 유적이 완연히 있었다. 나는 옛날 신라의 원효와 의상 두 법사가 신선굴 속에서 관음보살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스스로 범상한 몸과 속된 정신이라 신선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을 탄식하였다. 남긴 사적을 물어보려 하였으나 다만 산만 길게 뻗었고, 물만 흐르고 있음을 볼뿐, 수 백년 동안에 옛집과 남은 풍속이 모두 없어졌다. 곧 절구 두 편을 지어 이를 그리워하였다.

"일찍 들었노라. 거사인 늙은 유마힐(維摩詰)은,
지팡이를 휘날리며 허공을 건너서 만릿길을 지나갔다.
별써 문수보살(文殊菩薩)을 보내어 문병하러 왔으니,

일 없이 비야리(毗耶離)를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이것은 원효를 가리킨 것이다.

"지팡이를 휘날리며 좋은 곳을 찾아 외로운 바닷가에 이르렀으니,
묘한 양상 바라보니 허무에서 나왔도다.
대사로 인연하여 신령한 응답을 돌리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신통의 진주 한 덩이를 얻어 낼 수 있었으랴."

이것은 의상을 가리킨 것이다.->본론

한성에서부터 북쪽은 가보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전하는 총석, 명사 같은 곳은 모두 보지 못하였다. 그런즉 지금 강동에서 구경한 것은 정말 극히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가령 모조리 구경하였다면 비록 수 만장의 종이를 다 쓰며 천 자루의 붓을 다 부러뜨릴지라도 어떻게 모두 적을 수 있었으랴. 옛날에 사마태사(司馬太史)는 일찍 회계에 가서 우혈을 구경하여 천하의 장관을 다 보았으므로, 정신이 더욱 기절하고 커져서 그 문장이 소탕하고 웅장한 기운이 있었다. 무릇, 대장부가 널리 돌아다니며 먼 곳으로 구경을 다니어 천하를 휘젓는다면, 장차 그 가슴 속의 수려한 기운을 넓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만일 명예나 벼슬 속에 얽매어 있었다면 반드시 그 기절함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그 이상함을 채집하여 평소에 가졌던 뜻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늘이 나에게 후한 혜택을 베풀어 주셨음을 볼 수 있다. 월(月) 일(日) 모(某)는 적는다. ->결론

3.동행기 작품 분석

1. 서론
2. 본론
 - ① 당진
 - ② 동산
 - ③ 낙산
3. 결론

*형식 : 유람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다만 각 경관 묘사의 초반부에 '어디로얼마를 가면 무엇이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경관이 묘사된 세 단락엔 각각 시를 붙여 놓았다.

1. 서론

임춘의 사사로운 이야기. 강동지방을 여행하게 된 감흥.

2. 본론

① 당진.

㉠ ‘죽령에서~하고 있다.’

-당진의 물 속을 묘사한 부분. 대를 맞추거나 첨어를 사용하여 표현. 시선이 물 속까지 미쳐 그 속에 있는 물고기를 묘사

㉡ ‘좌우편은~형언할 수가 없다’

-당진의 좌우로 펼쳐진 경관을 묘사했다. 4자구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대를 맞춤. 경관의 아름다움을 수식적인 문장으로 담아내려함.

㉢ ‘마침내~떠났다’

- 당진의 경관을 더욱 가까이서 즐기기 위해 배를 타는 자신의 행동과 그 때의 상황, 느낌을 서술했다. 산수와 자신의 교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밝힘. 앞 단락과 구분된 고조되어 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냄. 일종의 리듬감. 4자구를 사용.

㉣

碧水溶溶色似藍 출렁이는 푸른 물 쪽빛 같은데
映波靑壁倒巉巖 물결에 아롱진 절벽 험한 바위 거꾸로 섰네
飄然萬里東征客 아득한 만릿길 동쪽 나그네
獨掛秋風一幅帆 혼자서 한 폭 돛대에 가을 바람 안고 가네

-초반부 두 구절은 산문부분에서 묘사했던 ‘당진’의 화려한 경관을 압축적으로 형상화하고 후반부 두 구절은 이러한 화려한 경관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쓸쓸함이나 고독감을 나타냄)

당시 임춘의 내면세계는 ‘불우’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나 받아들이 수 없는 상태였다. 단지 ‘길가는 나그네가 돛배를 타고 있는 풍경’을 서술한 것이 아니다. 飄然, 客, 獨, 秋風과 같은 시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쓸쓸함이나 고독감을 서술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만리길을 떠도는 나그네’나 ‘가을 바람에 홀로 떠가는 한 조각 돛배’는 불우한 임춘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동산(洞山)

㉠ ‘내가 동쪽 지방으로~듯하다’

2) 유종원의 산수유기를 습용함.

2) 유종원 柳宗元 (병) Liu Zongyuan (혜) Liu Tsungyüan. 773 중국 산시 성[山西省] 퉁관[潼關]~819 광시 성[廣西省] 류저우[柳州].

중국 당대의 문학자·철학자.

이명은 유하동(柳河東) 자는 자후(子厚). 하동해(河東解: 지금의 산시 성 원청[運城]) 사람이다. 일찍이 유우석(劉禹錫) 등과 함께 왕숙문(王叔文)의 혁신단체에 참가했으나, 실패하여 영주사마(永州司馬)로 좌천되었다. 후에 유주자사(柳州刺史)를 지내 유유주(柳柳州)라고도 한다.

한유(韓愈)와 함께 고문운동(古文運動)을 제창하여 거의 1,000년 동안 귀족 출신의 문인들에게 애용된 변려문(駢儷文)에서 작가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 한유와 함께 당송8대에 속하여 ‘한·유’(韓柳)라고 병칭된다. 그러나 철학상으로는 한유와 큰 견해 차이를 보여, 천(天)의 의지유무(意志有無)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유종원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는 오직 원기(元氣)만이 존재했으며, 천지가 나누어진 뒤에도 원기는 천지중에 있다고 생각했다. 원기 위에 천이라는 최상위 개념이 있는 것을 부정하여 천이 상과 별을 내린다는 천명론에 반대했다.

잡문(雜文)에서 전형적인 사물을 예로 들어 심오한 철리(哲理)를 제시했다. <포사자설 捕蛇者說> · <중수곽탁타전 種樹郭駝傳> ·

-> 빼어난 경관을 갖고 있지만 후미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산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뛰어난 문재를 가지고도 소외된 채 곤궁한 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산수에 가탁한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자신과 산수의 만남은 ‘운명’에 의한 것으로 여겼다.

㉠ ‘명주의~슬픔을 자아내게 하였다’

-> 해질녘의 쓸쓸한 산골의 경관에서 촉발된 ‘객수’를 ?의 구절을 습용하여 드러냈다. 하지만 임춘의 경우 단순한 객수가 아니라 절절한 슬픔이었다. ‘쓸쓸하고 매우 후미져있는 마을’처럼 자신도 매우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촌가의 풍경을 ‘객수’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

居民寂寞半溟濤 서러운 주민들 태반이 바다에 나가
百丈峯頭插麗譙 백 길 산마루에 우뚝 솟은 높은 집
帆影輕飛魚市闊 돛대 그림자 사뿐히 오면 어물전 넓어지고
浪花爭蹙海門遙 다투어 주름지는 물결 바다는 아득하네
征鞍冷帶黃昏月 싸늘한 황혼 달빛 속에 말 타고 오니
客枕頻喧半夜潮 밤중 밀물소리 나그네의 잠자리 소란해
不減吳江亭上望 오강정에서 바라보는 운치보다 더 좋아
丹楓綠橘映長橋 붉은 단풍 푸른 귤 다리에 비치네

-> 임춘의 ‘客愁’가 짙게 드러나 있다.

③ 낙산

‘새벽에~그리워 하였다.’

->명승고적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

원효를 회상하면서

曾聞居士老維摩 듣자니 거사 유마힐은
飛錫凌空萬里過 지팡이 날리며 허공을 지났다네
已見文殊來問疾 문수보살 보내어 문병 왔으니
不應無事出毘耶 일 없이 毘耶離3)는 나오지 않았으리

〈영주철로보지 永州鐵爐步誌〉·〈삼계 三戒〉·〈부관전 傳〉 등은 모두 정론(政論)과 철리를 예술적인 형상과 융합시킨 것으로, 구상이 참신하며 문체가 생동감 있다.

그의 산수유기(山水遊記)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경물(景物)의 특징을 묘사하는 데 뛰어났다. 유명한 〈영주팔기 永州八記〉 가운데 〈고무담서소구기 潭西小丘記〉는 돌을, 〈소석담기 小石潭記〉는 담수어를, 〈원가갈기 袁家渴記〉는 초목을 묘사했는데, 서로 다른 각각의 사물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또한 세상에 대한 울분을 자연풍경에 이입하고, 속세와 떨어져 있는 기이한 산수에 마음의 울분을 기탁하여 작품에 반영했다. 시의 내용은 담백하며, 유배생활을 반영한 작품과 경치를 묘사한 소시(小詩)는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그밖에 〈유하동집 柳河東集〉이 있다.

㉞

의상대사를 회상하면서

飛錫尋眞海岸孤 지팡이 짚고 좋은 경치 찾아 바닷가 에 이르니
親瞻妙相出虛無 바라보는 묘한 경치 허무에서 나왔도다
不緣大士廻靈應 대사로 인연해 신령한 응답 돌리지 못했다면
爭得神龍一顆珠 어떻게 신룡의 진주 얻어낼 수 있었으리

-> 낙산과 관련 있는 원효와 의상의 전설을 되새겨 보면서 이 두 승려에 대해 읊은 시이다. 그 전설이란 원효와 의상이 낙산사의 관음굴에서 관음보살과 만난 것을 가리키는데, 이 이야기는 일연(1206-1289)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³⁾

임춘은 짧은 서술로는 불충분했던 회고적 정서를 위의 두시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앞의 시는 원효의 행적을 높이 평가한 것이고, 두 번째 시는 의상이 낙산사의 관음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관음보살을 만났던 것에 대해 읊은 시이다.

3. 결론

㉟ ‘한성에서~적는다’

-> 임춘은 사마천의 빼어난 기, 소탕한 문장, 웅장한 기풍‘을 온몸으로 체득하기 위해 산수 유람에 임했지만, 그것을 문장으로 구체화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동행기’와 시대상, 의의

동행기에는 임춘이 살던 당시의 시대상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놀이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천 냥이라도 값을 올려 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와 ‘민가가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라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그 당시의 귀족들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산수가 좋은 곳의 땅을 사들여 그곳에서 노는 것을 즐겼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가의 모습은 그와 대조되게 피폐하게 그려내고 있어, 그 당시의 민중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그는 당시의 정치상을 비판하고, 비록 구체성을 띤 것은 아니지만 민의 피폐를 자주 언급하였다. 그가 문집에서 부분적으로 제시한 관료관은 대체로 ‘청렴’ ‘질고 제거’ ‘호강 억제’ ‘풍속 관찰’ ‘구민’ 등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로 진출을 포기한 상황 속에서 대유로 일컬어지는 문관들에게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가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황보항에게 가림주구의 정치를 개혁할 것을 부탁하고, 이지명에게 인재 발탁을 환기시킨 것

3) 一然, <삼국유사>권3.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상이 낙산 해변의 굴에 관음의 진신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재계한지 7일만에 용으로부터 구슬을 받았다. 다시 재계 7일 만에 진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의상은 그곳에다 금당을 짓고 낙산이라 이름하고는 받은 구슬을 두고 떠났다. 그 뒤 원효가 그곳을 찾아가다가 벼 베는 여자를 만났는데, 원효가 벼를 달라고 하자 그 여자는 쪽정이 뿐이라 하였다.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빨래 베는 여자를 만났는데, 원효가 마실 물을 청하자 그 여자는 빨래 뽀 물을 주었다. 원효는 그 물을 버리고 냇물을 마시고는, 길을 떠나 낙산에 이르렀는데, 그제서야 두 여자가 관음의 진심임을 알게 되었다’

은 개혁정치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춘이 살던 시기는 고려 왕조사에 있어 정치·문화적으로 분기점이 된 무신의 난(1170)이 일어난 때였다. 그로 인하여 왕권 중심의 사회에서 무인집권체제로 변전되어 갔다. 무인들의 통치 하에 이와 같이 90년간의 무신통치로 농장 확대, 노비 증가, 사회질서 붕괴, 하극상(下剋上) 풍조로 인한 천민의 난 등으로 암흑시대가 출현하였다. 농민들은 농업 생산량에 비하여 조세, 공납, 역의 부담이 무거워 대체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더욱이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조세를 거두어 들이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권세가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농민들은 자기의 농토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농토를 떠나 각지로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되기도 하였다. 임춘은 이러한 사회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그것을 동행기에 드러냄으로 인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꼭 동유기

1.작가-이곡(李穀)

고려 말엽의 학자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보(仲父), 호는 가정(稼亭)이다. 한산이씨 시조인 윤경(允卿)의 6대손으로, 찬성사 자성(自成)의 아들이며, 색(穡)의 아버지이다.

1317년(충숙왕 4) 거자과(擧子科)에 합격한 뒤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원나라에 들어가 1332년(충숙왕 복위 1) 정동성(征東省)항시에 수석으로 선발되었으며, 다시 전시(殿試)에 차석으로 급제하였는데, 이때 지은 대책(對策)을 독권관(讀卷官)이 보고 감탄하였다. 재상들의 건의로 한림국사원검열관(翰林國史院檢閱官)이 되어 그때부터 원나라 문사들과 교유하였다.

본국에서 밀직부사·지밀직사사를 거쳐 정당문학(政堂文學)·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가 되고 뒤에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졌다. 이제현(李齊賢) 등과 함께 민지(閔漬)가 편찬한 《편년강목 編年綱目》을 증수하고 충렬·충선·충숙 3조(三朝)의 실록을 편수하였으며, 한때는 시관이 되었으나 사정으로 선발하였다는 탄핵을 받았다. 다시 원나라에 가서 중서성감창(中書省監倉)으로 있다가 귀국하였으나, 충정왕이 즉위하자 공민왕의 옹립을 주장하였으므로 신변에 불안을 느껴 관동지방으로 주유(周遊)하였다.

1350년(충정왕 2) 원나라로부터 봉의대부 정동행중서성좌우사낭중(征東行中書省左右司郎中)을 제수받았고, 그 이듬해 죽었다. 그는 일찍이 원나라에서 문명을 떨쳤고 원나라의 조정에도 고려로부터 동녀를 징발하지 말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는 중소지주 출신의 신흥사대부로, 원나라의 과거에 급제하여 실력을 인정받음으로써 고려에서의 관직생활도 순탄하였다. 그는 유학의 이념으로써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결하였으나, 쇠망의 양상을 보인 고려 귀족정권에서 그의 이상은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여러 편의 시에 잘 반영되어 있다. 《동문선》에는 100여편에 가까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죽부인전 竹夫人傳〉은 가전체문학으로 대나무를 의인화하였다. 그밖에 많은 시편들은 고려 말기 중국과의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산의 문헌서원(文獻書院), 영해의 단산서원(丹山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가정집》 4책 20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동유기(東遊記) - 이 곡(李穀)

2.동유기 원문 해석

지정 구년(1349) 가을에 금강산에서 노닐고자 8월 14일 개성을 출발하였다. 이후 8월 21일에는 천마령을 넘었으며, 산 아래에 있는 장양현에서 잤다. 이 곳은 금강산과는 30여 리 떨어져 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대접받고 산에 오르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어두웠다. 마을 사람이 이르기를, "금강산에서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가 허다합니다."라고 하였다. 동행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마음속으로 구름과 안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였다. 금강산에서 5리쯤 못 미쳐, 어두운 구름이 점차 얹어지면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배재령(拜帖)에 올랐을 때는 하늘이 맑게 개여서, 산이 마치 칼로 끊어낸 듯 뚜렷하였다. 이른바 일만이천봉을 역력히 셀 수 있었다. 무릇 금강산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 고개를 거치는데, 이 고개에 오르면 금강산을 볼 수 있고, 금강산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므로, 이 고개를 '절재'라고 부른다. 이 고개에는 예로부터 집이 없었으므로, 돌을 쌓아 대(臺)를 만들어 쉴 수 있게 했다. 지정 칠년(1347)에 자정원(資正院) 영사(令使)인 강금강(姜金剛)이 중국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와서, 큰 종을 만들어 배재령의 정상에 누각을 지어 거기에 달아 두고는, 그 옆 절에 있는 종으로 하여금 종을 치게 했다. 산 위에 우뚝 선 종의 검푸른 쇠빛이 눈 덮인 산에 쏘이면 그 절은 일대 장관을 이룬다.

정오가 못되어 표훈사에 이르러 잠깐 쉬고, 한 동자승의 인도로 산에 올랐다. 동자승이 말하기를, "동쪽에는 보덕관음굴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를 먼저 구경합니다. 다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깊고 험하지요. 또한 서북쪽에는 정양암이 있습니다. 이 절은 우리 태조(왕건)께서 창건하셨으며, 법기보살의 존상(尊相)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파르고 높긴 하지만 가까운 편이므로 오를 만합니다. 정양암에 오르시면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관음보살이야 어디엔들 없겠느냐? 나는 금강산의 형승을 보고자 왔을 뿐이다. 그러니 어찌 정양암에 먼저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나무를 붙잡고 기어서 정양암에 오르니, 과연 듣던 바 그대로여서 마음이 매우 흡족하였다. 보덕관음굴에도 가려고 하였지만 날이 이미 저물고, 산중에서 머물 수도 없었기에, 신림암, 삼불암 등 여러 암자를 거쳐 계곡을 따라 내려와 저물녘에 장안사에 이르러 잤다.

이튿날 일찍 산을 나왔다. 철원에서 금강산까지가 삼백 리이니, 서울인 개성에서는 오백리여 리인 셈이다. 하지만 강과 고개가 거듭 나타나고 지세가 깊고 험하여 금강산에 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찍이 듣기로는, 이 산의 이름은 불경에 적혀 있고,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인도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의 사람도 종종 와서 구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개 보는 것은 듣는 것만 못하여서, 우리 나라 사람 가운데 서촉의 아미산과 남월의 보타산을 구경한 이들은 모두 전해 듣던 것만 못하다고 말한다. 나는 비록 아미산과 보타산을 보지는 못했지만, 금강산은 보니 듣던 것보다 훨씬 나왔다. 비록 뛰어난 화가나 시인의 손과 입을 빌더라도 금강산의 모습은 제대로 형용하지 못할 것이다.

8월 23일 장안사에서 출발하여 천마산의 서쪽 고개를 넘어 통구에 이르러 잤다. 무릇 금강산에 입산하려면 천마산의 두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고개에 오르면 금강산이 보인다. 이 때문에 고개를 넘어 금강산에 입산하려는 사람은 처음에는 금강산의 험준함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금강산에서 나올 때에야 천마령을 넘어 금강산으로 들어오는 길이 험난함을 알게 된다. 서쪽 고개는 좀 낮지만, 오르내리는 거리가 30여 리나 되고 몹시 험준하여 발단령(髮斷嶺)이라고 한다.

8월 24일 회양부에 이르러 하루 묵었다.

8월 26일 철령관(鐵嶺關)을 넘어서 북령현에서 묵었다. 철령관은 우리 나라 동쪽의 요새로

단 한 명의 군사만으로도 만 명의 군사를 막아낼 수 있다고 일컬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철령관의 동쪽에 있는 강릉 등을 관동(關東)이라고 부른다. 1290년에, 원나라에 대항하여 군사를 일으킨 원나라 태조의 막내동생 내안(乃顔)의 무리인 합단(哈丹) 등이 중국에서 전쟁에 패하여 우리 나라로 몰려 들어와 개원 등의 여러 군에서 관동으로 쳐들어오니, 우리 나라는 만호(萬戶), 나유(羅裕) 등을 보내어 철령관을 지키게 했다. 적은 등주(登州) 서쪽의 여러 주에서 노략질하며 등주에 이르자, 마을 사람을 시켜 정탐하도록 했다. 그런데 나유는 정탐꾼을 보고 적이 온 줄 알고 철령관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 이에 적들은 무인지경을 밟듯이 쳐들어와, 온 나라가 흥흥했다.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산성으로 들어가거나 섬으로 피난 가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행히 원나라 군사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야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지금 내가 철령관의 험준함을 보니, 이곳은 참으로 한 사람만으로도 능히 천만인을 막아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나유는 실로 소심한 사람이다.

8월 27일 등주에 이르러 이들을 묵었다. 지금은 화주(和州)라고 부른다.

8월 30일 일찍 화주를 떠났다. 학포 어귀에서 배에 올라 바다로 가서 국도(國島)를 구경하였다. 섬은 해안에서 십리쯤 떨어져 있으며, 섬의 서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물가에 흰 모래는 비단 같으며, 그 위에 평지가 200평 정도 된다. 땅의 형세는 마치 반쪽 구슬과 같은데 가운데에 집터가 있다. 어떤 이의 말로는 중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그 위에 산이 고리처럼 둘러쳐 있는데 그리 높지는 않으며 풀들로 덮혀 있고 나무는 없으니 그저 둔덕일 뿐이다. 배를 타고 서쪽으로 조금 가니 해안의 형세가 조금 달라진다. 해안의 암벽은 모두 직사각형으로 머리빗의 살처럼 반듯하게 서 있다. 바닷가의 암석은 둥글고 평평한 것이 늘려 있는데, 한 사람 정도는 앉을 만하지만 다듬어져 있지는 않다. 수 백 보를 더 가니 해안 암벽의 높이가 백 척에 이르고 그 암석의 색은 희며 직사각형이었다. 암석의 길이는 거의 같았고, 모든 암석은 꼭대기에 작은 돌 하나씩을 이고 있었다. 마치 무덤 앞의 망두석(望頭石) 같아서, 눈을 들어보니 놀랍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다. 거기에는 작은 굴이 하나 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니, 갈수록 좁아져 배가 들어갈 수 없었다. 굴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으며, 그 좌우의 한 무더기의 암석은 바깥쪽과 같되, 좀더 가지런하였다. 그 위에 돌부리를 늘어뜨린 암석은 모두 바둑판을 뒤집어 놓은 듯, 틈을 잘라 놓은 듯하였다. 이로써 볼 때, 외견상으로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섬 전체가 직사각형의 암석을 묶어 세운 듯하다. 굴은 깊고 험하여 낮이 떨어져 오래 머물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배를 돌려 북쪽으로 갔다. 가다보니 한쪽 면이 병풍을 둘러친 것과 같은 암석이 있기에, 배에 내려 빙빙 돌아 기어올라 가보니 굴에 있는 암석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암벽은 그리 높지 않으며, 암벽의 아래쪽은 평평하였다. 널려 있는 둥근 암석에는 천 명도 앉을 수 있을 듯하다. 구경꾼들은 반드시 여기서 쉬는데, 어떤 사람은 머물러 술을 마시니, 바람이 일어날까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여기는 밥을 끓여 먹으며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거주할 곳은 못되었다. 암벽 옆으로 동남쪽으로 수 백 걸음을 가니, 암석이 다소 달라졌다. 암석들은 네모난 철망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물에 닿고 닳아서 둥근 모양의 돌이 작아졌다. 그 길이는 오륙십 척이다. 돌기둥들의 모양도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표면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암석들은 철망석(鐵網石)이라고 부른다. 국도의 모습은 대략 이러한데, 그 기이하고 괴이한 형상은 필설로는 그려낼 수 없으니, 진실로 조물주가 어떻게 이렇게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겠다. 포구로 돌아와 술잔을 들어 서로 치하했다. 하나는 승경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풍랑

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구에서 배를 저어 이른바 학포에 이르러 원수대에 오르니 드넓고 맑은 호수에 소라 모양의 섬이 하나 떠 있으니 기이한 풍경이었다. 날이 저물어 더 이상 머물 수 없기에, 현의 관아(縣館)에 이르러 잤다.

9월 1일 흡곡현 동쪽 고개를 넘어 천도에 들어가고자 섬의 형상을 물어보니 섬에는 구멍이 있어서 남북으로 통하며 바람과 파도만 드나들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천도를 거쳐 남쪽으로 가야 총석정에 이를 수 있는데 그 거리는 8, 9리이며, 총석정을 거쳐 남쪽으로 가야 금란굴에 이를 수 있는데, 그 거리는 10여 리라고 한다. 또한 배에서 바라보는 그 곳 풍경은 형언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날 바람이 약간 불어 배를 탈 수 없었고 때문에 천도에 갈 수 없었다. 해변을 따라서 총석정에 이르니, 통주의 고을 수령인 심군이 총석정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총석정의 사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암석이 하나로 묶여 있고 그 암석은 직사각형이어서 대개 국도에서 본 것과 같으나 암석의 색이 검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이다. 위에서 내려보니 네 봉우리는 제각각 우뚝 서고, 깎아지른 절벽도 우뚝하여, 동으로는 바다가 만리에 닿아 있고, 서로는 고개가 천 겹으로 이어져, 실로 관동의 장관이다. 옛날에는 절벽 위에 비석이 있었으나 지금은 볼 수 없고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또 동쪽 봉우리에도 옛 비석이 있는데, 마멸되어 한 자도 알아볼 수 없으니, 언제 세운 것인지 모른다. 어떤 이의 말로는 신라 때 영랑, 술랑 등의 화랑이 무리 3천명을 이끌고 여기에 놀러왔다고 하니, 이 비석이 그들이 세운 것인가? 역시 알 수 없다. 사선봉에 이르니 그 위에 작은 정자가 있기에 술자리를 베풀었고, 날이 늦어 통주에 이르러 잤다. 통주는 옛날 금란현으로 성의 북쪽에는 석굴이 있는데 사람들은 금란굴이라고 부른다. 여기는 관음보살이 있다고 한다.

9월 2일 배에 올라 해안을 따라 굴로 들어가 보니, 굴 안에 관음보살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 굴이 깊고 좁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선원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에 거주한 지도 오래되었지요. 원나라의 사신이나 우리나라의 시골 선비님, 근처에 부임한 나리 등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유람 온 일반인 등 귀천을 막론하고, 꼭 들어가 보고자하며, 매번 제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정말 들어가기 싫습니다. 일찍이 작은 배를 타고 홀로 굴 안으로 들어가 끝까지 가 보았지만, 볼 만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손으로 문질러 보니, 이끼 낀 돌일 뿐이었고, 나와서 돌아보니 뭔가 있는 듯하였지요. 아, 제 정성이 부족했던 지 보살은 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을 얻은 것은 이른바 '오래 생각한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법이다'라는 것이 아닐지요."라고 하였다. 나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굴 동쪽에는 돌로 된 못(石池)이 있는데, 사람들의 말로는 관음보살이 목욕하던 곳이라 한다. 또 암석들도 있는데, 각각의 크기는 사방 한 치이며 무리를 이루어 넓이가 몇 묘에 이르고 모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다. 사람들이 통족암(痛足岩)이라고 부르는데, 대개 관음보살을 발로 밟아 아프다고 하며, 암석 또한 이 때문에 기울어졌다고 한다. 금란굴에서 나와 임도현에 이르러 잤다.

9월 3일 고성군에 도착하였다. 통주에서 고성까지는 150여 리이다. 이는 금강산의 뒤편으로 깎아지른 암석과 험준한 산세로 인하여 사람들이 외금강산(外山)이라고 부른다. 대개 내금강산과 더불어 그 기괴함을 다룰 만하다. 동남쪽에는 유점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큰 종과

53개의 동불상이 있다. 사람들의 말로는 신라 때 53개의 불상이 여기 있는 중을 타고 서천 축국에서 바다를 건너 고성 해안에 와서 정박하였으며 나중에 여기에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고성의 남쪽에는 계방촌이 있는데 실은 산기슭이다. 계방촌에서 가파른 길 60리를 오르면 유점사에 이른다. 처음에 나는 함께 온 사람들과 약속하기를 유점사에 와서 종과 불상을 보기로 하였는데, 여정이 멀고 험하여 말들이 등과 발굽에 상처가 생겨 뒤따르지 못하는 놈들이 있어 산에는 오르지 않기로 했다.

9월 4일 일찍 일어나 삼일포에 이르렀다. 삼일포는 고성 북쪽으로 5리쯤 떨어져 있다. 배에 올라 서남쪽의 작은 섬에 이르니 무지개 형상의 큰 암석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돌로 만든 함이 있고 함 안에는 석불이 있다. 세상에서 미륵당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그 절벽 동북쪽에는 여섯 글자의 붉은 글씨가 있는데, 가서 보니 세 글자 두 줄이었는데, "술랑도남석행(述郎徒南石行)"이라고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술랑남석'의 네 자는 뚜렷하였으나 아래의 두 자는 희미하여 알아볼 수 없었다. 옛날에 유람객들의 뒷바라지를 고달파한 마을 사람이 글자를 쏘아버렸으나, 글씨의 깊이가 5촌 썸이나 되어 자획이 깎여나가지 않았다 하니, 지금 두 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가 보다.

이윽고 배를 돌려 사선정에 올랐다. 사선정은 호수 가운데 있는 섬에 있다. 정자 위 난간에 기대어 사방을 둘러보니 이른바 서른 여섯 봉우리의 그림자가 호수에 거꾸로 비쳐 있다. 호수의 넓이는 백 경(頃) 가까이 되며 그 물이 맑고 깊고 가득 차 있어 실로 관동의 승경이며 국도에 버금간다. 이 날 아침 군수가 없고 다만 하급관리가 술상을 마련했는데 혼자 마실 수 없어 배를 타고 나왔다. 사람들의 말로는 이 호수는 사선이 놀던 곳이라 하며, 서른 여섯 봉우리에는 봉마다 비석이 있었는데, 호종단(胡宗坦)²⁾이 모두 모와 물에다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 호종단은 중국 남당(南唐)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 벼슬을 하였는데, 오도(五道)를 순시하면서 이르는 곳마다 비석을 보면 그 글자를 굵어버리거나 부수거나 물에 던져버리고, 유명한 종들은 쇠를 녹이거나 구멍을 막아 소리를 못 내게 했으니, 한송정, 총석정, 삼일포의 비석과 경주의 봉덕사의 종 같은 것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선정은 박숙정이 존무사(存撫使)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좌주(座主) 익재 이제현 선생이 기문(記文)을 지었다. 삼일포에서 고성 남쪽의 물을 건너 안창현을 지나 명파역에서 묵었다.

9월 5일 고성에서 자고 하루를 더 묵었다.

9월 7일 주인이 선유담에서 작은 술상을 마련해 주어 마셨다. 청간역을 지나 만경대에 올라 한 잔 하고, 인각촌의 한 집에서 잤다.

9월 8일 영랑호에 배를 띄웠다. 날이 늦어 멀리 나가지 못하고, 낙산사에 이르러, 백의대사(白衣大士)를 뵈었다. 사람들의 말로는 관음보살이 머문 곳이라고 하는데, 산 아래의 절벽에 있는 구멍은 관음보살이 들어간 곳이라 한다. 늦게 양주에 도착하여 묵었다.

9월 9일 중구일인데 비가 와서 누대 위에서 국화주를 들었다.

9월 10일 동산현에서 묵었다. 여기에는 관란정이 있다.

9월 11일 연곡현에서 묵었다.

9월 12일 강릉 존무사 성산 이군이 경포에서 기다렸다. 배를 타고 가면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날이 기울기 전에 경포대에 올랐다. 옛날 경포대에는 집이 없었는데, 근래 호사자가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 그 곳에는 옛날 화랑들의 돌 화덕이 있는데 이는 차를 끓이는 도구이다. 삼일포와 비견할 만하지만, 특 트인 전망은 삼일포보다도 낫다.

비가 와서 여기서 하루를 묵었다. 강성을 나와 문수당을 구경하였다. 어떤 이의 말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두 석상은 땅에서 솟아난 것이라고 한다. 동쪽에는 사선비(四仙碑)가 있었는데 호종단이 물에 던져 버리는 바람에 오직 귀부만이 남아 있다. 한송정에서 먹고 마셨는데, 한송정 역시 사선이 놓던 곳이다. 군민들이 유람자가 많이 오는 것을 꺼려서, 한송정을 헐어버렸다. 거기 있는 소나무 역시 불이 나 다 타버렸다. 다만 돌 화덕, 돌못(石池), 두 개의 돌우물만이 그 곁에 남아 있으니, 이 역시 사선이 차를 끓일 때 쓴 것이다. 한송정 남쪽으로 가니 안인역이 있는데, 해가 저물어 고개를 넘을 수 없기에 여기서 하루 묵었다.

9월 14일 일찍 출발하여 안인역을 지나니 동쪽 봉우리가 매우 험준하였다. 등명사에 이르러 일출대를 구경하였고, 바다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다가 강촌에서 쉬었다. 고개를 넘어 우계현에서 묵었다.

9월 15일 삼척현에서 묵었다.

9월 16일 서루(西樓)에 올라 이른바 오십천 팔영(五十川八詠)이라는 곳을 구경하였고, 다시 교가역에 이르렀다. 교가역은 현청에서 30리 거리였다. 15리 떨어진 곳 바다 옆 절벽 위에 원수대가 있으니 절경이었다. 한 잔 술을 마시고 역사에 돌아와 잤다.

9월 18일 옥원역에서 잤다.

9월 19일 울진에 도착하여 하루를 더 묵었다.

9월 21일 일찍 울진을 출발하였다. 현에서 남쪽 10리 지점에 성류사가 있는데, 절은 절벽 아래에 있으며 큰 시내의 위에 있다. 절벽의 암석은 천 척이나 되었고, 거기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성류굴이라고 부른다. 굴의 깊이는 잴 수 없으며, 캄캄하여 촛불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종을 시켜 횃불을 들고 인도하게 하고, 마을 사람들 가운데 잘 아는 자를 시켜 앞서고 뒤따르게 하였다. 굴의 입구는 좁지만, 네다섯 걸음 기어가니 조금 넓어져 걸어갈 수 있었고, 또 몇 걸음 더 가니 세 길은 족히 될 절벽이 나타났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니, 점점 평탄하고 특 트여 넓었다. 수 십 걸음을 더 가니 평지가 있는데, 몇 묘는 되어 보였다. 좌우에 있는 돌의 모양이 기이하였다. 또 열 걸음 쯤 가니 다시 구멍이 나오는데 굴의 입구보다도 좁았다. 엮드려 들어가니, 아래에는 진흙탕이 있어서 자리를 깔아 습기를 막았다. 다시 일고여덟 걸음을 가니 점차 특 트였고 좌우에 있는 돌이 더욱 기이한 것이 절에 있는 당

번(幢幡)이나 부도(浮圖)와 같았다. 또 십 수 걸음을 가니 돌 모양이 더욱 기괴하고 다양하여 식별할 수가 없었다. 당번과 부도 같은 것은 더욱 길고 넓었다. 네다섯 걸음을 가니 불상 같은 암석도 있고 고승 같은 암석도 있으며, 또한 물은 매우 맑으며 몇 묘는 족히 될 정도로 넓은 못도 있었다. 못 가운데는 암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레바퀴 같고 하나는 물병 같은데, 그 위와 옆에 축 늘어진 돌은 오색이 찬란하다. 처음에는 이들 암석은 돌고드름이 응긴 것이라서 그리 단단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지팡이로 두드려 보았더니 각기 그 길이에 따라 맑고 흐린 소리를 내어서 마치 편경과 같았다. 다른 사람의 말로는 못을 따라 들어가면 더욱 기괴하다고 했지만, 나는 이곳이 속인들이 함부로 놀 곳이 아니라고 여겨서 급히 나왔다. 굴의 양옆에도 많은 굴이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그 사람에게 굴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물으니, 아무도 그 깊이를 모른다고 한다. 어떤 이는 평해군의 바닷가까지 닿으리라고 한다. 그 거리는 대개 20여 리이다. 들어갈 때는 옷이 더러워 질까봐 종의 옷을 빌려 입고 갔는데,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니, 꿈에 전설상의 이상국인 화서국에 다녀온 듯했다. 일찍이 조물주의 오묘함은 측량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국도와 성류굴에서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이것들은 정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고의로 만든 것일까? 저절로 되었다면 그 변화의 공교로움이 이처럼 극에 이를 줄을 어떻게 알며, 고의로 되었다면 비록 귀신의 빼어난 능력이긴 하지만 천만 세에 이처럼 뛰어난 것을 만들 줄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 날 평해군에 도달하였다. 평해군을 5리쯤 남겨둔 데에, 소나무가 만 그루나 있고 그 안에 정자가 있는, 월송(越松)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다. 사선이 노닐다가 우연히 여기를 지나치게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해군은 강원도의 남쪽 경계인데, 강원도는 철령에서 남쪽으로 평해에 이르기까지 대략 1,200여 리이다. 평해의 남쪽에는 경상도가 있는데, 경상도는 내가 일찍이 다녀왔으므로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3.동유기 내용 분석4)

-동유기는 현전 관유기 중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을 구경한 작품으로는 가장 오래된 글이다. 지은이 이곡이 1349년 가을, 개성을 출발하여 천마령을 넘어 금강산을 거쳐 내금강에서 시작, 외금강 까지 탐승한 기행문이다. 8.9월에 관동지방을 유람하고 그 체험을 서술한 것인데, 이 관동유람의 성격은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일종의 도피성 유람이었다고 한다. 특히 이 작품은 산수유람의 즐거움을 서술한 글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사대부의 관인의 식이 짙게 베어 있다. 그중에서도 민생, 지리, 유적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인다. 8월 14일 개성을 출발하여 9월 21일까지의 여정을 상세히 실고 있는데 여정을 중심으로 동유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5)

4) 이곡 동유기의 현대어 해석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명산답사기], 서울, 1997, pp125-131 을 참고하였다.

5) 동유기에 대한 해석은 <고려 후기 산수유기 연구>, 남현희; -4.관인의식과 사실적 묘사- 부분에서 발췌한 것을 참고로 하여 우리조의 창의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요 여정

<배재령>

배재령에 올라서 본 금강산의 모습을 화려하게 묘사 하였다. 특히 “배재령에 올랐을때는 하늘이 맑게 개여서 산이 마치 칼로 긁어낸 듯 뚜렷하다”는 부분은 생생한 묘사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 고개에 오르면 비로소 금강산을 볼 수 있는데, 금강산을 보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므로 ‘절재’라고 한다고 하여 지명의 유래를 서술했다.

<정양암>

이 글에서 보면 정양암은 태조왕건때 창건 하였으며, 이곳또한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정양사에서 잔 다음날>

개성에서 금강산 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금강산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밝혔는데 불경에까지 나온 이름이므로써 외국 사람(인도)까지 와서 구경한다고 하여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철령관>

철령관은 우리나라가 동쪽의 국경 요충지대로 단 한명의 군사로도 만 명의 군사를 막아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라고 한다. 1290년대에 원나라의 반역세력이 쳐들어 왔을 때 ‘나유’는 정탐꾼을 보고 겁을먹어 철령관은 버리고 도망가서 백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서 이국은 철령관의 험준함으로 보아 마땅히 한사람으로 천만 명을 막아낼만한데 도망간 ‘나유’를 ‘실로 소심한 사람’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백성들의 피해를 염려하는 모습으로 보아 여기서 관인문학적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국도>

국도에서는 작가의 생동적 묘사가 가장 다양하게 드러나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가가 본 절경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

본문에서 ‘해안의 암벽은 모두 직사각형으로 머리빗의 살처럼 반듯하게 서 있다’라고 한 부분은 주상절리⁶⁾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수백보를 더 가니 해안암벽의 높이가 백 척에 이르고 그 암석의 색은 희며, 직사각형 이었다. 모든 암석은 꼭대기에 작은 돌을 하나씩 이고 있었다’라고 한 부분은 동해안의 해안 절벽을 보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해안절벽과 바위로 된 섬에 관련해서는 ‘돌부리를 늘어뜨린 암석은 모두 바둑판을 뒤집어 놓은 듯, 톱을 잘라놓은 듯하였다. 이로써 볼 때, 외견상으로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섬 전체가 직사각형의 암석을 묶어세운 듯하다.’고 상세히 묘사 했다.

국도의 경관에 관한서술은 시선과 발길의 이동에 따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주관적 감정이 절제 된 객관적인 묘사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한시로써 기행을 기록할 때는 표현하지 못한 생동감이나, 섬세함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동유기

6) ‘금강’의 어원은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에서 연유 되었으며, 이 산이 불교의 영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강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는 ‘이 세상의 팔금강중 하나가 해동조선에 출현했고, 그곳에는 담무갈보살이 머문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금강산이란 이름은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7) 주상절리 [柱狀節理, pillar-shaped joint]: 단면의 형태가 육각형 내지 삼각형으로 긴 기둥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절리. 현무암 기둥.

는 이전의 산수유기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세부 묘사를 성취하였다. 8)
또한 이곡은 ‘국도’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국도를 가장 뛰어난 광경으로 인식한다. 국도에 대한 이곡의 표현을 보면 ‘조물주가 어떻게 이렇게 지극한 경지를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했으며 ‘성류굴’에서는 ‘실로관동의 승경으로 국도 다음에 갈 만하다’라고 했다. 이렇게 국도를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동유기>의 서술에서 국도의 경관을 묘사하는 데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되었던 것이다.

<총석정>

총석정에 있는 사선봉을 보고 묘사한 부분이다. 정철의 관동별곡⁹⁾에서는 이 부분을 ‘白백 玉옥樓 누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서 잇고야’-(옥황 상제가 사는 백옥루의 기둥이 네 개만이 서 있는 듯 아름답구나)-라고 표현하였다. 이곡은 여기서 신라 때 화랑들이 무리 3천명을 이끌고 와 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

<금란굴>

금란굴에 들어가서 관음보살의 형상을 희미하게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안내해 준 선원의 말을 듣게 된다.

선원은 “제가 여기에 거주한 지고 오래 되었지요. 원나라의 사신이나 우리나라의 사골 선비님, 근처에 부임한 나리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유람 온 일반인등 귀천을 막론하고 꼭 들어가 보고자하며 매번 제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였지요. 하지만 저는 정말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곡은 여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은 덧붙이지 않고 선원의 말을 그대로 실었다.

비록 화자가 이곡 자신은 아니지만, 이러한 서술은 호사가의 폐단을 훨씬 생생하게 지적해주는 현장 증언이 된다. 이 밖에도 이곡의 동유기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人言)”, “사람들이 이르기를 (人謂)”, “이른바 (所謂)”와 같은 말이 자주 등장 하는데, 이것은 해당 전설. 또는 의견과 자신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 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현지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독자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곡의 자세 또한 관인으로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며 백성의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해 보려는 관인문학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10)

<삼일포>

삼일포¹¹⁾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이며, 관동 팔경¹²⁾중 하나로서 유명한 관광코스였다. 이곡은 삼일포에 가서 ‘매향비’와 ‘6자단서암’, ‘사선정’을 보았다. 본문에 나오는 ‘큰 암석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돌로 만든 함이 있고 함 안에는 석불이 있다. 세상에서 미륵상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매향비에 관한 설명이다.

매향비는 단서암의 꼭대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매향비는 글자 그대로 향을 묻고 세운 비석을 말한다. 미륵신앙과 관련해 특히 향나무를 해변에

8) <고려후기 산수유기 연구>, 남현희 -4.관인의식과 사실적 묘사-부분에서 발췌한 세부묘사에 대한 해석이다.

9) 조선 시대 가사 문학의 제 1인자로 꼽히는 정철의 대표작으로, 그가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받아 부임하는 도중의 여정, 관동 지방의 뛰어난 풍물을 둘러보고 그 경치와 그에 얽힌 고사(故事) 등을 적은 가사이다. 독창적이고 서정적인 기행 가사로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가사 문학의 백미(白眉)이다.

10) 송재소, [가정 이곡의 ‘동유기’에 대하여] - (가정 이곡 선생 탄신 700주년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1998) 참조

11) 신라시대에 영랑(永郎)·술랑(述郎)·남석랑(南石郎)·안상랑(安祥郎) 등 4국선(四國仙)이 뱃놀이를 하다가 절경에 매료되어 3일 동안 돌아가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삼일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12) 관동8경 : 강원도 지방의 동해를 따라 있는 8개의 승경지 1)통천 총석정, 2)고성 삼일포, 3)간성 청간정, 4)양양 낙산사, 5)강릉 경포대, 6)삼척 죽서루, 7)울진 망양정, 8)평해 월송정

묻는 이른바 매향의 풍속인데 장차 미륵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면 그에게 향을 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다. 매향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행사 후 그 사실을 바위에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향비를 남겼던 것이다.

옛 사람들이 왜 향을 묻고 비를 세웠을까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륵의 출현을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미륵은 말세가 되면 이 세상에 내려와 어려움에 빠진 민중들을 구원해 준다는, 기독교로 말하자면 메시아와 같은 존재이다. 민중들은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향을 묻고, 그들의 소망을 담은 매향비를 세웠던 것이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매향비가 발견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¹³⁾

그리고 이곡은 ‘6자 단서암’이라고 불리는 바위를 보았다. 6자 단서암은 말 그대로 ‘6자의 붉은 글씨가 쓰여져 있는 돌’이라는 말이다. 거기에는 ‘술랑도남석행(述郎徒南石行)’이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술랑의 무리와 남석행’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술랑의 무리가 남석에 오다’로 풀이하기도 한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옛날에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 등 네 명의 신선들이 삼일포에서 놀다간 것을 기념해 쓴 글씨라고 하는데 용천사의 ‘혜성가’¹⁴⁾에 보면 화랑의 무리들이 금강산에 유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곡은 이 6자 단서암에서 단순한 감탄이나 느낌이 아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여기서도 동유기의 관인문학적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옛날에 유람객의 뒷바라지를 고달파 한 마을 사람들이 글자를 쪼아버렸으나’라는 부분이다. 삼일포는 대단한 관광코스 였는데 이곳을 찾아온 양반 관리들이 늘 이 글씨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이들을 접대하느라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이 고을 사람들이 단서암을 짓이겨 물속에 처박는 바람에 지금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삼일포에서 가본 마지막 코스인 ‘사선정’은 삼일포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다. 여기서는 사선정의 아름다운 경치와함께 호종단의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글을 보면 호종단의 문화재 파괴 행위는 단순히 한가지에 제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호종단은 ‘고려사’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종단은 중국 송(宋) 때의 복주(福州) 사람이다. 일찍이 중국 태학(太學)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이 되었으며 상선(商船)을 따라 고려에 왔다. 글을 잘하고 영승술(厭勝術·비보진압 풍수)에도 능해 예종의 총애를 받았다. 예종이 죽었을 때 ‘고려사’ 사관은 예종이 호종단의 풍수설에 지나치게 빠졌다고 비판했다. 예종에 이어 인종 때도 호종단은 ‘기거사인’의 직책으로 왕의 측근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호종단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정사에 관여했는지는 전설을 통해 짐작 할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유능한 인재가 나오리라는 관측

13) 강원도 고성 의 삼일포를 비롯해 경상남도 사천, 전라남도 영암, 목포 및 충청남도 서산 등 전국의 해안 지방에서 매향비가 발견 되었다.

14) 신라 제26대 진평왕때의 승려 용천사가 지은 10구체 향가.

《삼국유사》 권5 〈용천사혜성가조(融天師慧星歌條)〉에 실려 있다. 즉, 제5거열랑(居烈郎)·제6실처랑(實處郎)·제7보동랑(寶同郎) 등 세 화랑이 풍악(楓岳:금강산)으로 유람차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心大星:28宿中 心宿의 大星)을 범하는 성괴(星怪)가 일어났다. 이런 괴변은 가끔 국토에 불길한 변란을 가져오므로, 세 화랑은 금강산 유람을 포기하였다. 이때 용천사가 향가를 지어 불렀더니 천체(天體)의 괴변은 간 곳이 없고 국토를 침범한 왜병(倭兵)들이 모두 달아나 버려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한다.

이 떠돌았다. 이를 질투한 중국의 조정에서는 압송지술(이기는 기술)에 능한 호종단을 불러 제주도에 유능한 인재가 나면 안 될 터인 즉, 제주도에 있는 13혈(穴)을 찾아 모두 막으라는 명을 내렸다. 예종 때 중국 복주사람 호종단은 제주도에 들어와서 지맥과 수맥을 모조리 끊고 다녔다. 그러지 않으면 중국에 항거할 큰 인물이 제주도에서 날 형국이었기 때문이었다. 호종단은 일을 마치고 고산 앞바다를 통해 돌아가려고 하였다. 호종단의 배가 차귀도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홀연히 배 한 마리가 날아와서 폭풍을 일으키더니 호종단의 배를 침몰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한국의 혈을 끊기 위해 들어온 호종단은 9개(또는 13개)의 혈을 모두 다 끊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의 민족혼과 관련된 곳이 바로 사선정이며 호종단에 의해 파괴된 사선정에 대해 이곡은 안타까움과 함께 또 한번의 관인의식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사선정 관련

김대문이 지은 『화랑세기』에는 “사선은 신라 효소(재위 692~701) 때의 화랑(述郎·南郎·永郎·安詳)으로 모두 영남 혹은 영동사람이며 국선(國仙)이다’고 하였는데 출생연대는 확실치 않다. 또 이들 네 선동(仙童)이 그의 무리 3천 명과 더불어 바닷가에서 놀았다고 하였으며 강릉의 경포대와 한송정, 속초의 영랑호, 간성의 선유담, 삼일포의 사선정, 금강산의 사선봉 등의 땅이름이 남아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이인로(李仁老)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사선랑은 신라시대의 나그네
 낮이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랐네
 천년 동안 남긴 자취 추적해 보니
 삼산에는 약초만이 남아 있더라.

사선과 관련된 명칭이 남아있는 곳을 더 찾아보자면,

사선대: 전북 임실(대)·무주(바위)·경남 거창(대)·남해(고적)·충북 단양(바위) 등

사선루: 충북 단양

사선암: 전북 무주(바위)·경남 의령(바위)

사선정: 강원 명주(정)

사선지: 충남 태안(신선지 마을)

영랑(리·마을): 강원 횡성·원주·속초

영랑호: 강원·속초

영랑사: 충남 당진(절) 등이 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고 신라의 대표적 화랑인 사선이 노래와 춤을 즐기고, 도를 닦으며 심신을 수련하던 곳이라고 짐작 할 수 있다.

<경포대>

경포대에서는 화랑과 관련한 다도문화에 대한 짐작이 가능한 구절이 나온다. ‘옛날 화랑들의 돌 화덕이 있는데 이는 차를 끓이는 도구이다.’ 와 ‘다만 돌 화덕, 돌 못, 두개의 우물만이 그 곁에 남아있으니, 이 역시 사선이 차를 끓일 때 쓴 것이다’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참고-화랑도와 다도정신

화랑도 정신과 관련하여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이름하여 풍류라 이른다. 그 교의 기원은 선사에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 실로 이는 삼교를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집에 들어오면 효도를 다하고, 나아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魯司寇)의 뜻 그대로이며, 그 한없는 일을 당하여 말없는 교를 행하는 것은 주주사의 종지를 다함이며,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함은 축견태자의 교화 그대로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랑도는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했으며, 충효신의를 지켜 유교를 무의무언지교 화광동진(和光同塵) 충기이위화 하는 선교를 또 자비덕행하는 석가의 불도를 다 같이 수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랑의 기상은 유. 불. 선의 장점을 산천에의 주유와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여 또 차와 더불어 체득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라시대의 화랑정신은 이를 「화합(和合). 충절(忠節). 숭경(崇敬). 청결(淸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랑의 다정신도 화(和). 충(忠). 경(敬). 청(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문수당을 구경하면서 호종단의 문화재 파괴행위와 군민들의 고생을 헤아리는 마음등이 나타나있다. ‘군민들이 유람자가 많이 오는 것을 꺼려서 한송정을 헐어버렸다.’고 한 부분은 삼일포-6자단서암에서 느낀 백성들의 고생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성류굴>

성류굴¹⁵⁾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近南面) 구산리(九山里)에 있는 동굴이다. 한국에서 가장 유서깊은 동굴의 하나로, 작가 이곡이 성류굴에 대하여 언급한 동유기는 한국 최초의 동굴탐사사가 되는 셈이다.

이곡은 여기서 석회암 동굴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 성류굴 관련 부분에서도 엄청난 묘사력을 보여주며,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니, 꿈의 전설상의 이상국인 화서국에 다녀온 듯 하다’라는 말로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묘사부분에서는 종유석과 석순을 ‘하나는 수레바퀴 같고 하나는 물병 같은데, 그 위와 옆에 축 늘어진 돌은 오색이 찬란하다’라고 묘사했다.

<월송>

동유기의 마지막 여정이 월송이다. 월송이라고 이름 붙여진 유래에 대해 설명하며, 동유기를 맺는 말을 하고있다.

15) 굴의 명칭은 임진왜란때 성류사의 부처를 이 굴에 피난·보호 했다는 데서 유래했으며 경치가 좋아 신선들이 노는 장소라 하여 선유굴 이라고도 한다. 그밖에도 장천굴, 탕천굴 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석회암동굴 중 최남단에 위치한다는 지형학적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동굴이다.

4. 동유기의 특징·의의

동유기가 지어질 당시의 고려 정세를 보면, 외부적으로는 원의 지배로 민족의 자주권이 제약을 받았던 시기이며, 내부적으로는 지방에 경제적 기반을 둔 신흥사대부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 이들 신흥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사상적·학문적 기반으로 했는데 이러한 성리학의 도입은 사물을 인식하는데 태도 변화를 초래했다. 곧 사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파악과 역사·민생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이곡은 바로 이런 신흥사대부층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 꼽히며 <동유기>에서는 이곡의 이러한 성향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

1) 사대부의 애민심

이곡의 동유기를 보면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는 중에서도 민생을 걱정하며, 그들의 말 한마디를 새겨들으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애민심의 시작 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철령관>에서는 그곳의 험준함으로 보아 마땅히 한사람으로 천만 명을 막아낼만한데 도망간 ‘나유’를 ‘실로 소심한 사람’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지리적 이점을 잘 이용해서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금란굴>에서 선원의 말을 빌려 “근처에 부임한 나리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유람 온 일반인등 귀천을 막론하고 꼭 들어가 보고 자하며 매번 제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였지요. 하지만 저는 정말 들어가기 싫습니다”라는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실었다. <삼일포>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엿보이는데 ‘옛날에 유람객의 뒷바라지를 고달파 한 마을 사람들이 글자를 쪼아버렸으나’라는 부분이다. 삼일포는 대단한 관광코스 였는데 이곳을 찾아온 양반 관리들이 늘 이 글씨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이들을 접대하느라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이 고을 사람들이 6자 단서암을 짓이겨 물속에 처박는 바람에 지금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송정>에서는 ‘전별주를 마셨다. 이 정자 역시 사선이 노닐던 곳인데, 고을 사람들이 유람자가 많은 것을 귀찮게 여겨 집을 헐어 버렸고 소나무들도 불에 타버렸다’라고 나타나있다.

이러한 애민심 때문에 이곡은 산수유람의 흥취에 마음껏 빠져들지 못하고, 항상 민생을 날카롭게 파악하려는 반성적인 관인의 자세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2)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소중함

동유기 본문을 보면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래 깊은지 나타나 있고, 우리의명산인 금강산의 곳곳을 보도 각탄하면서 천하제일 이라는 감격을 느낀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온 호종단이 우리의 “혈”을 끊기 위해서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가 종종 언급된다. 그리고 ‘금강산이 중국의 아미산이나 보타산보다 낫다’는 서술을 통해서도 자국의 산수미에 대한 자부심 까지 드러나 있다.

3) 성세한 묘사

이곡의 동행기가 관인문학적 성격을 띠며, 우리문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때문에 산수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산수유기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형승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이곡은 금강산에 대한 자부심¹⁶⁾이 대단했으므로 그만큼 산수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

16) “일찍이 듣자니 이 산의 이름이 불경에 나타나 있고 온세상에 소문이 나서 저 멀리 천축의 사람 가운데도 때때로 보러오는 자가 있다”고 한다. 는 서술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곡의 금강산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 이라고 할 수있다.

넘치는 묘사로 구체화 되었는데 사실적인 묘사가 기행문에서 본래 나타나는 특징 이기는 하지만 <동유기>는 이전의 산수유기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세부묘사를 성취하였다. 또한 <국도>의 묘사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주관적 감정이 절제된 객관적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묘사는 고려 후기 산수유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묘사형태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산수유기를 보면 <동유기>의 서술 방식이 보편적으로 활용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곡의 동유기는 경관의 사실적 묘사를 중시하는 조선시대 산수유기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곡에게 있어서 산수는 미적 완상의 대상 일 뿐만 아니라 사대부관인 으로서 자기반성의 장소라는데 의미가 있다.¹⁷⁾

5.<금강산>관련 자료

草木微生禿首髮	풀과 나무가 조금 나서 벗겨진 머리에 터럭 같고,
煙霞半捲袒肩衣	연기와 놀 반만 걷히니 어깨 드러낸 가사 같네.
兀然皆骨獨孤潔	우뚝 높은 봉우리 빼뿐인지 홀로 외롭고 깨끗하나니,
應笑肉山都大肥	마땅히 육산들의 살찌고 크기만 한 것을 웃으리라.

-전치유(田致儒·고려 때의 문신, 호는 十口子), 「金剛山」

→ 고려시대의 한문시로 금강산의 깨끗함을 노래하였다.



→정선-금강전도

17) 《고려 산수유기 연구》, 남현희 에서 참고했으며, 동유기의 특징을 3가지로 압축하고 정리한 것은 우리조의 창의적인 토론이다.

6. 『산정무한』 과 『동유기』 에 대하여

정비석은 풍류를 아는 사람이다. 장안사를 떠나 명경대, 황천 계곡, 망군대, 마하연, 비로봉, 마의 태자 묘에 이르기까지 일 분 일 초가 아까웠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입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가는 길의 경치, 자신의 느낌과 생각, 어떤 지명에 얽힌 전설과 또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 웬만한 사람이면 느꼈을 산길을 걷는 지루함은 이 글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는다.

장안사에 이르기까지의 경치를 보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산의 빛깔이 어떻다느니, 나무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예찬이 나온다. 발길 닿는 곳마다 절경이요, 신비로운 일화가 얹혀 있어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저절로 탄성을 올리게 하는 금강산에 대해 지은이는 이 금강산의 풍치와 절경과 거기서 오는 낭만적 정감을 신선한 감각과 화려하고 섬세한 문체로 표현함으로써 기행문이라는 단순한 기록성을 뛰어넘어 서경과 서정이 잘 조화된 문학으로 승화시켜 기행 수필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그의 수필은 현란하고 격렬하게, 애상적, 회고적으로 자연 친화의 감정을 표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은 직유와 은유의 자유자재한 구사, 한자어의 표현의 깊은 함축, 묘사의 독창성들이 서로 어울려, 독자의 가슴에 이제는 가볼 수 없는 우리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을 소용돌이치게 해준다.

앞서 『동유기』는 관인의식이 잘 드러나 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섬세한 묘사가 돋보인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산정무한』 역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글이다.

금강산 가는 길에 전나무 잣나무들이 대장부의 기세로 쪽쪽 뻗어 있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나무들을 '모든 근심 없이 자란 나무들이었다. 청운의 뜻을 품고 하늘을 향하여 뿔뿔하게 자라난 나무들'이라고 힘 있는 필체로 강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명경대를 그린 장면에서 '틀림없는 화장경(化粧鏡) 그대로였다. 옛날에 죄의 유무를 명경에 비추면, 그 밑에 흐르는 황천담에 죄의 영자(影子)가 반영되었다고 길잡이는 말한다. 명경! 세상에 거울처럼 두려운 물건이 다신들 있을 수 있을까. 인간 비극은 거울이 발명되면서 비롯했고, 인류 문화의 근원은 거울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나의 지나친 역설일까?'라고 박력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 역시 일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풍이 든 산을 감상하면서,

‘ 산 전체가 요원(불타는 별판)같은 화원이요, 벽공에 외연히 솟은 봉봉은 그대로가 활짝 피어 오른 한 떨기의 꽃송이이다. ’ 라고 하면서 더욱 더 화려하게 그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치마저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